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설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54호 현대불교
2009년 10월 21일(음 9월 4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오직 자기근본에서만이 모든 걸 리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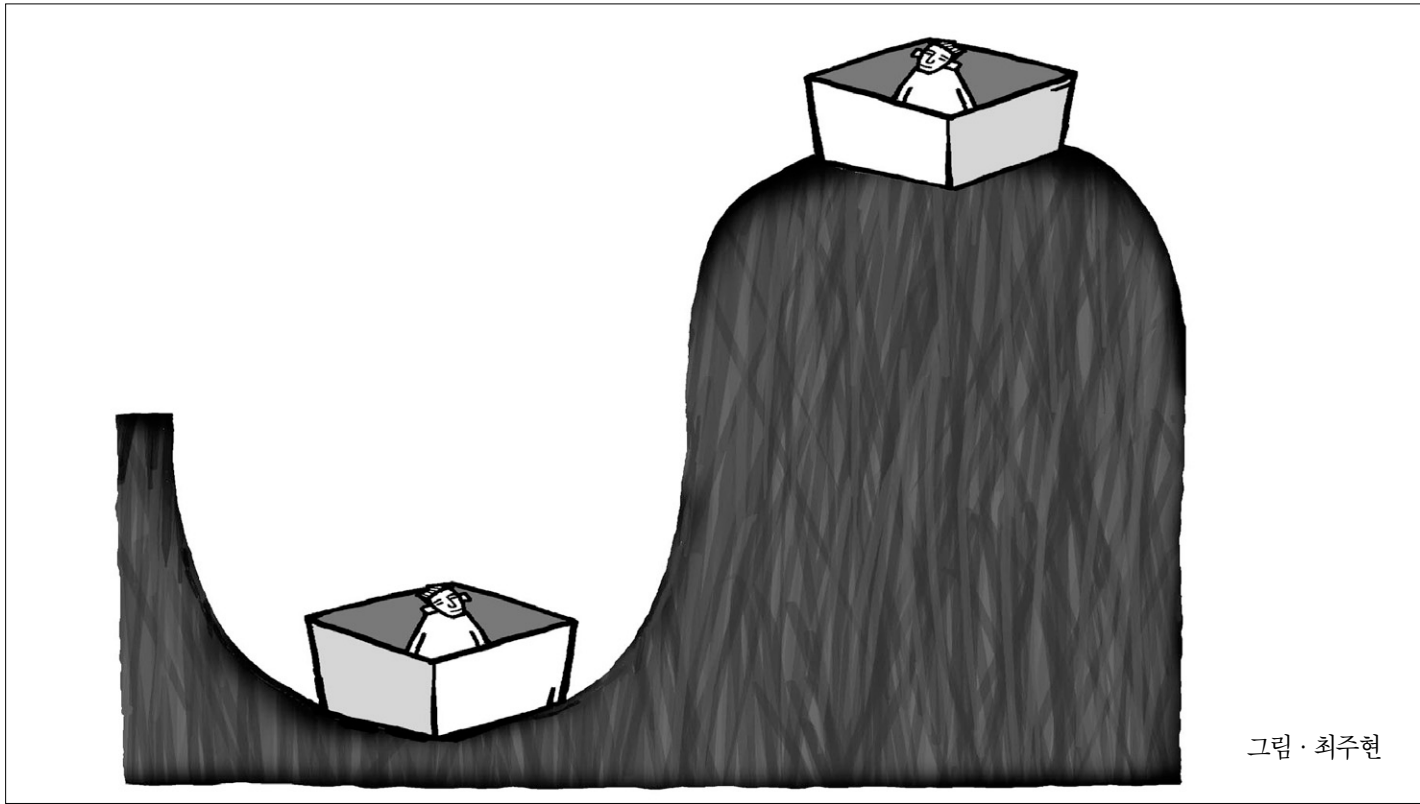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저는 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앞의 신도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대답은 다 받았지만, 지금 이해도 못하고 머리등질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종합건강진단을 위하여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위암에서 간으로 전이된 말기 암이라고,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올 7월에 죽을 문 앞까지 가서 한 20여 일간 사경을 헤매었는데, 저도 이 한마음선원을 접한 지는 채 얼마 되지 않았고, 말로는 불교 집안이라고 했지만 불교의 법도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집사람은 딴 교인인데도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도 모르게 진주선원에서 천도재를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승통은 퇴위 놓았다고 하셨다고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왕 가는 마땅에 깨끗하게 간다고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천도재를 지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데 거짓말같이, 진짜 거짓말같이 제가 그 뒷날에 바로 일어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 어떤 절인지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하자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그 문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그래서 단숨에, 환자 중에서도 중환자인 제가 딱 정확하게 13일 전에 큰스님 친견을 하러 승용차를 밤새도록 한 4시간 만에 몰고 본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을 친견을 못하고 내려갈 때는 힘이 좀 빠지더군요. 가면서 테이프도 들고 하면서, 제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뭔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친당숙 삼촌들 한 8명이 젊은 나이에 암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종손이면서 장손이고, 또 우리 세대가 저 밑으로 한 5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이라는 걸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저의 대에 와서 또 이렇게 되니까, 잘 먹고 잘살 때는 뭘했는데 그 (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음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남은 삶인지 모르겠지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큰스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허허하... 그 순간에 벌써 님의 마음의 문이 열렸으니 뭐, 저절로 답걸 게 아닙니까? 참



고마워요. 생각을 그렇게 해 주니까. 내가 고맙다 할 일은 아니지만, 이 세상 이치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허공에 있으니까요.

질문자3(남): 스님! 제가 요즘 들 아닌 도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참 편한데요, '돌이 아니잖아.' 이랬을 때에는 뭔가 걸립니다. 그렇게 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나름대로 관해 본 결과 '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믿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스님, 진정한 믿음의 공덕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너만이 낮게 할 수 있잖아.' 하는 거는 진짜로 믿으니까 그렇지? 또 '돌이 아니잖아.' 하는 거는, 즉 말하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 아니잖아.' 이 소리가 나오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대대로 유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백 년을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천 년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만 그 유전을 해체시킬 수 있는 공부야 바로 이 공부입니다.

어저께가 과거입니다. 어저께가 과거고, 아까 한 시간 전이 과거니까, 우리가 과거다 미래다 또는 현실이다 할 게 없이 그대로 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내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컵을 먹는다 해도 내가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목이 말라서 달리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근본에서만이 자기의 모든 걸 리드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처음에는 '저건 형상이지, 이렇게 따지지만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 보신다면, 해 보신다면 아실 거예요. '내가 몸이 몽땅 공해서 비었다면 저 부처님과 같다. 부처님과 같으면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니 못 볼 게 없고 못 할 게 없고 못 건질 게 없고, 모든 게 다 그렇다.'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마음에... 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거나 또는 말을 잘못 한다거나 이

런 원인도 눈 하나가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말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 그냥 공체로 보라, 공식으로 보라. 아무리 강도라도 강도가 아닌 사람이 강도를 볼 때는 강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도면 강도로 봅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봐도 강도로 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곱고 텅 빈 사람은 그대로, 와이든지 선이든지 그걸 가리지 않고 불쾌하게 하질 않습니다.

사찰마다 스님네들이 노비를 얻으려 옵니다. 그런데 얻으려 오니까 싫죠. 얻으려 오니까 싫은데 그게 얻으려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전자에 빛을 쬐기 때문에 주는 거다. 값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쉽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을 인의롭게, 섬섬지 않게 잘한다면 그건 모두 보살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보살 케이스에 들지 못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하기만 하겠습니까만 '잘 하든 못하든 무조건 거기다 놓고 관해라. 거기다 놔 버려라. 내가 공해서 없다면 모든 게 없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함이 없이 하는 거니까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배를 탄

것도 아니고 배를 안 탄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것도 없다.' 이게 모두가 끊어진 상태죠. 예를 들어서 '배움이 끊어진 사람은 한가하기 짝이 없는데, 망상도 버리지 않고 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선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 악도 버리지 않는다.' 이래도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 걸 다 아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돌이 아니게 되죠.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 하나 별래 하나라도 다 돌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급하면 새들도 와서 일러 주고, 이런 수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직감적으로 다 잘 하는데 사람들은 요기서 요한 발짝 사이도 몰라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모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가 맞으면 죽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가는 새도 있고, 미리 탈출하는 짐승도 있지만 사람은 그걸 모르고 죽는다 이거죠. 그것들은 알고도 힘에 겨워서 죽는데, 사람은 피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냥 모르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알개꿈 다 해 봤는데 왜 모르고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찢고 찢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살아온 것이 얼마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니가 그렇지,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나는 지금 뭐가 급하냐. '이 주머니 속에서 내내 수없는 나날을 그냥 그렇게 살겠느냐? 망탕 털고, 탁탁 털고 나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질문자3(남): 스님, 이왕 쉽지 않게 나왔으니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크게 불사를 일으킨신 왕을 보고 전륜성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달마 조사께서는 똑같은 행을 한 왕을 보고 공덕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결국은 스님 자신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달마 조사님의 둘 아닌 뜻은 무엇입니까?

큰스님: 달마 스님이 그걸 똑바로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죽었는데도 '나는 이렇게 죽지 않았다. 나는 산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도 없었다. 너희들 똑바로 보라.' 하고서 신 한 짝을 주장자애다가 곁고서 보여 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만큼까지 그 말씀이 내려오고 있으니 그 왕

22면으로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現場風水
현장풍수

❖ 명혈에 대한 간평 수록!

풍수지리 안내서! 풍수지리의 근본사상은 승조효린사상이다. 어떤 종교를 믿던 간에 먼저 자기 조상을 숭상해야 된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풍수지리에 대해 소개한다. 심혈순서, 음양오행론, 나경총론, 용법론, 각종서법론, 혈장총론 등이론을 정리하였으며, 명혈에 대한 간평을 많이 실어 다루었다.

제1장 심혈 순서
제2장 음양오행론
제3장 나경총론
제4장 용법론
제5장 각종 서법론
제6장 혈장총론
제7장 수법론
제8장 발복추산법
제9장 본산론의 특성과 물형론

朴奉柱 著

신국양정본 / 528쪽 / 값 25,000원
■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오직기도할뿐!
하루 108번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일기도 입재

4 분 정 근	새벽기도 : 33번
	사시기도 : 21번
	2시기도 : 21번
	저녁기도 : 33번

◆ 입재일 : 10월 18일 (음, 9월 1일)
(1차 100일 기도)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동참비 : 10만원
(농협 073-02-262101 전혜진)

◆ 접수처 : 전화 041)942-9465
팩스 041)942-8465

충남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703-4
성불사 선보 합장

한방 (韓方) 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학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